

“사회공헌활동 뜻깊고 보람차 희망 전하는 지혜로운 위로자 될 것”

고양시 '5060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 고양 생명의전화 김성득 봉사자

글 배미진 사진 주효상



늘어난 기대수명과 짧아진 은퇴 시기에 중년 세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때 고양시가 추진 중인 '5060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 은퇴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보유한 퇴직자들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참여해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양 생명의전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득(55) 봉사자도 사업 지원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중장년들의 사회활동 시기가 짧아지는 시기에 이런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돼 힘이 난다"며 방긋 미소 지었다.

Q. '5060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2007년부터 고양 생명의전화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 생명의전화 실장님에게 소개받았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5060세대가 신청 대상이 된다는 참여하게 됐습니다.

Q. 생명의전화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대학생 시절 후배들이 저에게 신앙상담이나 연애상담을 많이 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상담사라는 직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연히 생명의전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봉사를 시작했죠. 지금은 전화 상담과 학교에서 자살 예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Q. 비대면 활동이라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난 전화가 많아 와요. 또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요. 아주 포용적이고 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이 아니기에 언어적 요소 외에도 비언어적 요소를 많이 생각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말을 이어가는 호흡과 내담자의 음성 높낮이, 감정변화 등을 살펴야 하죠.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고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상담 전날은 가능하면 일정을 잡지 않고 컨디션을 신경 써요. 항상 집을 나서기 전에는 오늘 제 말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양 생명의전화 상담 공간

Q.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전화가 있나요?

예전에 시각장애인 분이 살면서 어려운 점을 토로하셨어요. 상담을 끝낸 후 가룸에 마른 나무 같았던 마음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며,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말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최근에는 한 청년과 상담을 끝낸 뒤 좋은 모습으로 감사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보람이 느껴졌어요.

Q. '5060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시는 소감은?

대부분의 봉사는 무료로 진행해요.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니까 기쁘고 감사했죠.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퇴직자나 봉사자들도 기분 좋게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장년 세대는 정년퇴직 기간이 짧아지고 사회활동 기회도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 작은 힘이나마 되지 않을까요?

Q. 앞으로도 상담 봉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에게 상담이란 제게 주어진 사명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처음 시작할 때의 다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강화해서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희망을 지니고 터널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